

## ▶ 달러/원 주간 전망

### • 美 고용이 자극한 변동성..달러·증시 반응 살피기

서울, 9월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양방향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25-1345원이다.

시장 관심을 끌었던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실업률은 소폭 떨어졌지만, 신규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밑도는 혼조된 결과를 보이자 각 자산시장은 일관된 방향성보다는 제각각 변동성만 잔뜩 키웠다.

연준 위원들은 9월 금리인하 개시에 대한 보다 선명한 힌트를 줬지만 '빅컷'에 대한 시장 기대는 낮아졌다.

노동시장 모멘텀이 둔화되는 게 확인된 가운데 이번 주는 연준 정책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물가지표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시장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 물가지표 결과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워낙 최근 시장이 변동성에 취약해진 모습이라 모든 지표 결과에 대한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 반응은 염두에 둬야할 듯하다.

로이터 전망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비 0.2% 상승해 7월과 같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두고 경기침체 우려를 키운 국내외 주식시장 반응은 원화에 있어 주요 변수다. 달러 약세가 폭넓게 진행된다면 원화는 달러 방향을 따를 여지가 크지만, 지난 주말처럼 강달러와 기술주 약세가 함께 진행된다면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준 '빅컷' 기대 완화가 달러 반등을 견인하는 한편, 뉴욕 증시는 경기침체 이슈 부담을 떨치지 못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1320원대 중반에서 1340원선으로 크게 뛰었다. 최근 주거래 레인지를 제대로 이탈하진 못했지만 양방향 변동성은 한껏 커졌다. 다음주에 있을 연준 정책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수시로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원 역시 산만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 초에는 중국 물가와 수출입지표를 소화해야한다. 최근 위안 변동성에 원화가 영향받는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경제 우려에도 약달러를 따르며 강세 압력을 받았던 위안의 되돌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한다.

한편, 박빙의 승부를 유지 중인 미국 대통령 후보들 간의 TV토론회와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등도 주목할 이벤트다. ECB의 25bp 금리 인하 단행이 폭넓게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참가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 주간 세계 5대 이슈

향후 몇 주간 거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거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긴장 중인 가운데 9월의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

### ⊙ 인플레이션 지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의 고용과 경제 성장으로 옮겨갔지만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물가 지표는 여전히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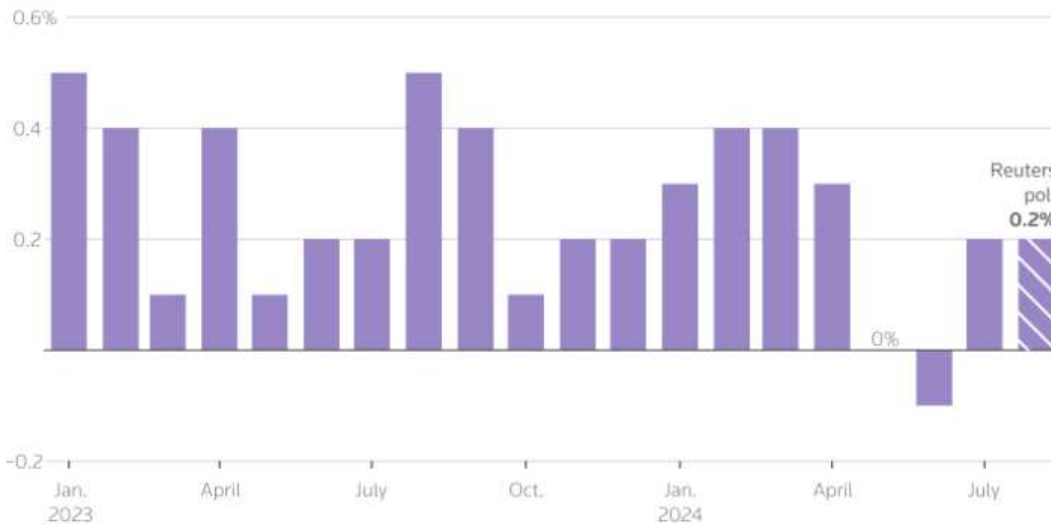
시장은 9월17~18일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중요성은 크다.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증거는 현재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여겨지는 50bp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하락은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저울추가 기울 수 있다.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조사한 결과는 8월 인플레이션이 0.2% 상승해 전월 상승률과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 Poll projects US CPI inflation kept steady in August

Economists polled by Reuters expect U.S. consumer prices to have risen 0.2% in August from the previous month, matching the pace recorded in July.



Sources: LSEG Datastream, Reuters polling  
Prinz Magtulis • Sep. 4, 2024 | REUTERS

### ⊙ ECB의 다음 움직임

유럽중앙은행(ECB)의 두 번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다음 행보에 대한 단서가 더 중요해졌다.

트레이더들은 현재 9월 이후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50%에 가깝게 보고 있으며 올해 추가 인하 가능성

은 50%로 보고 있다.

7월 중순에는 9월 이후 인하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봤다.

12월 인하를 유력한 것으로 보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10월 인하 가능성 여부를 듣고 싶어한다.

ECB 정책 입안자들은 조심스러워하며 일부 매파는 여전히 9월 인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들은 약화된 성장 전망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놓고 비둘기파와 대립하고 있다.

8월 인플레이션은 ECB의 목표치인 2.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2%를 달성하기 전 더 많은 증거를 원하고 있다.

### ⊙ 금과 유가의 비율

투자자들은 채권과 주식 시장 중 어느 쪽이 경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채권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반면, 주식은 최근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단 하나만 옳다는 것이다.

금과 유가의 비율, 즉 금 1온스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원유 배럴 수를 반영하는 이 지표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비율은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하락하고, 성장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상승한다.

금XAU=은 온스당 2,500달러 부근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거래되고 있으며, 유가LCOc1는 배럴당 70달러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 Black gold

Investor concern about the global economy has made gold pricier relative to oil than at any time since late 2020



Note: Spot gold price (\$/oz) relative to dated Brent (\$/barrel); grey areas represent US recession  
Source: LSEG/Datastream; St Louis Fed - Reuters/Amanda Cooper

## ⊙ 영국의 임금상승률

영란은행은 2021년 금리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인상했는데 오는 10일 발표되는 월별 임금 보고서와 같은 중요 데이터로 안심할 수 없다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1일 영란은행이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트레이더들은 11월 까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면서 주요 인플레이션 요인인 임금 상승률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임금은 6월30일까지 분기 동안 거의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했지만 실업률은 예상치 못하게 하락했고 노동인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고용지표 둔화는 대출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

파운드화 강제 포지션은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투기세력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제 징후가 보이면 파운드를 매도할 동기가 강하다.

## ⊙ 일본 총리 투표

일본의 차기 총리는 올해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수십 년간 디스인플레이션 이후 일본은행(BOJ)의 긴축 정책에 대한 지원, 선진국 중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현 기시다 후미오 총재는 비자금 스캔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9월27일 당내 투표를 앞두고 9월12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를 대신할 후보군은 약 1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총리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는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반면, 이시바 시게루 후보는 지난달 논란이 된 BOJ의 금리 인상 전 정책 정상화를 추진했다. 또한, 여성 후보 중 선두 주자인 사나에 다카이치 후보는 리플레이션론자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美 고용지표에 다시 고개 든 경제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뉴욕, 9월9일 (로이터) -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미 높아진 시장 변동성 시기에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변화, 긴박한 미국 대선,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된 노동시장 모멘텀을 보여주며 연준이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연착륙 경로가 좁아졌음을 시사하자 하락했다.

연준은 9월17~18일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데이터는 수개월간 상승한 차입 비용이 이미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는 탄력적인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한 금리 인하 전망이 올해 S&P500지수.SPX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이후라 투자자들에게는 달갑지 않다.

에드워드 존스의 수석 투자전략가인 안젤로 코르카파스는 "지표는 우리가 연착륙 경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주지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하방 위험이 더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서 "변동성 확대 전망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위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S&P500지수는 6일 1.7% 하락하고, 주간 4.3% 가까이 하락해 2023년 3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인공지능 열풍의 주역인 엔비디아(NVDA)는 4% 이상 하락해 약 한 달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인 다른 기술주들과 함께 부진했다.

한편,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시장 변동성 지수(VIX)는 거의 한 달 만의 최고치로 올랐다.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키스 레너는 "연준이 더 불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충분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여럿 있다. 6일 투자자들은 연준이 25bp 인하할 확률을 70%, 50bp 인하할 확률을 30% 정도로 책정했다. 다만, 이 이슈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엘피엘 파이낸셜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서면 코멘트에서 "시장은 연준과 마찬가지로 8월 취업자 수 데이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 노동 시장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모멘텀을 잃는 것을 나타내는 건지에 대해 고심해야한다"고 말했다.

더 어두운 전망도 제시됐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고용 보고서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는 "다양한 노동 시장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고용시장은 경기 침체 이전의 고전적인 패턴으로 냉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경제 체력과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베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밸류에이션 우려도 재부상하고 있다. LSEG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올해 13% 이상 상승한 S&P500지수는 5일 현재 12개월 선행 예상 수익 추정치의 거의 21배에 달하는 주가수익비율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평균 15.7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S&P500 기술섹터(SPLRCT)는 예상 수익 28배 이상에서 거래되는데 장기 평균은 21.2배다.

인트레피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마크 트래비스는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먼 길을 걸어왔고, 일부 기업들은 AI에 관해 계산을 해보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고, 이는 대형 기술주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미국 대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11월5일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는 10일 처음으로 토론을 벌이는데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경쟁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엔프제이 투자 그룹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번스 맥키니는 "투자자들은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자리 수가 약해질 때마다 그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9월9일 (일)

- ⊙ KDI: KDI 경제동향(2024.9) (12:00)
- ⊙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3일~11일, 스위스 바젤)

9월10일 (화)

- ⊙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장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2024년 제16차(8.22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9월11일 (수)

- ⊙ 관세청: 9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 ⊙ 통계청: 2024년 8월 고용동향 (08:00)
- ⊙ 한국은행: 2024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대정부질문 (14:00)

9월12일 (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07:30)
- ⊙ 금융감독원: 원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09:30)
- ⊙ 기획재정부: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10:00)
-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10:00)
-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12:00)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14:00)

9월13일 (금)

- ⊙ 한국은행: 2024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금융감독원: 2024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기획재정부: 2024년 9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1:00)
- ⊙ 한국은행: 2024년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4년 7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9월9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9월9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7월	2,589.3B	1,533.5B
9월9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연율	2분기	3.2%	3.1%
9월9일	10:30	중국	PPI YY	8월	-1.4%	-0.8%
9월9일	10:30	중국	CPI YY	8월	0.7%	0.5%
9월9일	17:30	유로 존	셉탁수지수	9월	-12.5	-13.9
9월10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7월	12.45B	8.93B
9월10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8월		93.7
9월10일		중국	수출 YY	8월	6.5%	7.0%
9월10일		중국	수입 YY	8월	2.0%	7.2%
9월 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8월	6.2%	6.3%
9월 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8월	1,045.0B	260.0B
9월 10-17일		중국	FDI (YTD)	8월		-29.60%
9월11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9월		10
9월11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9월6 일 주 간		230.5
9월11일	21:30	미국	CPI MM, SA	8월	0.2%	0.2%
9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8월	0.0%	0.3%
9월12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2 일 주 간	230k	227k
9월12일	21:30	미국	PPI MM	8월	0.1%	0.1%
9월13일	03:00	미국	연방예산	8월	-349.60B	-244.00B
9월13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SA	7월		2.8%
9월13일	18:00	유로 존	산업생산 MM	7월	-0.3%	-0.1%
9월13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8월	-0.2%	0.1%
9월13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8월	-0.1%	0.7%
9월13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 치	9월	68.0	67.9
9월14일	10:30	중국	중국 주택가격 YY	8월		-5.0%
9월14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8월	3.5%	3.6%

9월 14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8월	4.8%	5.1%
9월 14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8월	2.5%	2.7%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 11일 (수)

- ⊙ 나카가와 준코 일본은행 정책위원 연설 및 기자회견

9월 12일 (목)

- ⊙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정책위원 연설 및 기자회견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발표 (오후 9시 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9시 45분)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높은 불확실성·금리 인하 구간 눈길 끄는 배당주..밸류업지수 호재 기대도**

서울, 9월 6일 (로이터) -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한 '블랙 먼데이' 후유증과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으로 국내 증시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밸류업 지수도 이러한 투자 행태를 거들고 있다.

6일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한달 동안 배당주펀드 자금유입액은 4473억원으로 기간중 4% 증가했다. 반면, 국내주식 ETF로의 유입액은 0.9% 증가에 그쳤다.

또한, 배당수익률 상위 업종(방송통신, 은행, 금융, 보험, 증권) 수익률도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산업별 주요 종목을 수치화한 KRX지수 중 증권지수는 5.37%(기간 8월 5일~9월 5일), 보험지수는 4.29%, 금융지수는 2.72%, 은행지수는 1.11%, KRX방송통신지수는 0.74% 각각 올랐다. 반면, 코스피지수는 3.76% 하락했다.

배당주는 벤치마크 지수 대비 변동성이 낮고 방어적 성격이라 큰 차익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할 때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서는 배당수익률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말로 갈수록 기업 배당 기대가 높아지므로 계절적으로 9월과 10월은 배당주 성적이 양호하다. 코스피 내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을 선별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코스피



지수에 비해 상승률이 평균 2.8%p 높았다.

실제로 다수의 증권사들은 이달 전망 보고서에서 증시의 반등 여력이 약한 국면에서 고배당 및 밸류업 관련 업종을 관심을 두며 좋은 대안이라 제시했다. 동시에 9월 중 발표 예정인 정부의 밸류업 지수도 이들 업종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의 일환인 밸류업지수는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들로 구성된 지수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4분기에는 이 지수와 연계한 ETF도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밸류업지수는 밸류업 우수기업과 유망기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보다는 1개 지수를 발표하는 데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사 중심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됐지만, 최근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10대 그룹의 밸류업 동참 분위기로 기존 대표지수와 차별화를 둘 가능성도 커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9월 전망 보고서에서 "밸류업 지수 이벤트 역시 고배당, 가치 등과 같은 방어적인 스타일의 모멘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 업종을 비롯해 자동차, 통신 등은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함께 고배당, 높은 수익성을 갖춘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는 만큼 9월 불확실성 구간에서 양호한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 (종합)-정부, 연금개혁안 발표..보험료율 4%p 인상, 세대별 차등

서울, 9월4일 (로이터)-

정부는 4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10월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은 후속방안인 '연금개혁 추진계획(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담았다. 또한, 소득 공백에 따른 연금 크레딧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2025년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2026년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보험료율 9% → 13% 인상..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험료율은 마지막으로 인상한 때는 1998년이였다.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즉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당초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

정이었지만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금수익률 1%p 이상 제고할 방침이라며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년 세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달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해 잔여납입 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 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연 0.25%p를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지만, 최근 저출생 및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 ▲ 소득 공백 크레딧 기간 강화,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

정부는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일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인정하고, 군 복무 시 기존 6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소득 지원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출 가능성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하는 의무가입 연령 64세는 수급 연령 65세와의 간극을 조금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미 상향 조치가 결정되어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은 이번 개혁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 (달러/원 월간 전망 ①)-연준 금리인하 개시 전망에도 반등 리스크 경계

서울, 9월2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개시에도 달러/원 환율은 1300원대 초·중반에서 지지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08.7-1356.0원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8월 잭슨홀 연설 이후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달러 약세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고용발 경기침체 우려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달러/원이 빠르게 레벨을 낮춘 만큼 금리 인하폭이 25bp에 그칠 경우 달러 약세가 제한되거나 오히려 반등할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 회의에 앞서서는 미국 비농업 고용 등 경제지표 결과를 살피며 시장은 경기 연착륙에 대해 평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자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해외투자 수요는 강한 달러/원 하단 지지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포기 이후 처음 열리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 토론은 글로벌 달러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로이터 최근 조사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45% 대 41%로 앞서는 가운데 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 (달러/원 월간 전망 ②)-연준 금리인하 개시 전망에도 반등 리스크 경계

서울, 9월2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개시에도 달러/원 환율은 1300원대 초·중반에서 지지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08.7-1356.0원으로 제시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08.7-1356.0원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조가영 과장(신한은행)

"9월 초반에는 FOMC 대기하며 1330원대에서 횡보하는 흐름 유지하다 비농업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벅컷 기대 여부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 이후에 있을 미국 대선 토론도 글로벌 달러가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가 우세한 흐름 보일 경우 달러/원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음. 9월 FOMC회의에서 25bp인하 + 연속 인하 가능성 내비치는 수준 예상하며 그로 인해 달러/원 하단 지지될 것으로 예상."

- 예상 거래범위 : 1310-1345원

▲ 이창섭 과장 (우리은행)

"잭슨홀 미팅의 파월 발언 통해 FOMC에서 금리인하는 확정적. 미국 고용이나 경제 상황이 빅컷을 단행할 정도로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해 금리 25bp인하 예상. 다만, 오랜기간 기다린 연준의 금리인하 시작, BOJ 통화정책 전환 및 최근 위안 강세와 연동해 1300원 초중반대에서 환율 결정될 것으로 전망. 다만,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강한 반등 가능성도 있음."

- 예상 거래범위 : 1310-1345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연준 금리인하 25bp, 또는 50bp 기로에 놓여. 미국 고용과 물가지표로 월 초반 금리 인하폭 가늠하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연휴 막바지에 있는 FOMC에서 인하폭과 향후 방향에 관심이 모일 것. 빅컷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 기대감을 되돌리며 달러/원 상승하겠지만, 최근 지표 상황 볼때 연준 스탠스는 도비시할 것으로 보여 달러/원 상단 제한될 전망. 수급상 추석과 분기말 감안하면 달러/원 상고하져 장세 예상. 만약 연준 빅컷 단행될 경우 기술적으로도 상단의 불씨가 되었던 1310원 레벨 하향 돌파가 중요해 보이며 이 레벨 돌파시 중기 하향추세 이어갈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310-1350원

▲ 이철우 과장(IBK기업은행)

"미국 금리인하가 9월 어느 정도 폭으로, 연내 얼마나 인하할지 관건. 8월 초부터 고용, CPI, 잭슨홀을 거치며 확대된 9월 50bp 인하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견인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50bp 인하할 경우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안전자산 수요 촉발 등으로 달러는 일시적으로 과도한 강세로 반응할 수 있을 것. 다만, 25bp 인하일 경우 50bp 인하 기대감에 대한 되돌림으로 환율은 소폭 상승한 뒤 방향성을 탐색할 것. 따라서 9월 달러/원은 FOMC를 기점으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320-1370원

▲ 전병철 과장 (NH농협은행)

"9월 달러/원 하락 예상. 최근 달러/원의 과도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도 어느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미국 경제지표 결과 따라 추가 하락할 수도. 외인 증권자금도 9월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수급도 환율 하락 우호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310-1350원

▲ 이민혁 연구원(KB국민은행)

"달러는 연준 9월 금리인하 가시권에 약세 흐름 지속될 전망이나 미국 국채 금리의 과대 낙폭 되돌림에 달러 반등 리스크 존재.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보험성 인하일 경우 미국 장기 국채 금리와 달러 상승 전환 가능. 한-미 장기 국채금리차가 달러/원의 주요 변수로 미국 경기 연락처 또는 경착륙 여부와 양국 통화정책 경로가 중요. 달러/원은 연준 금리인하 전까지는 하방이 우세하나 FOMC 이후에는 달러 반등 리스크에 환율 하방 제약될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290-1350원

▲ 김유미 연구원(키움증권)

"달러 약세 보이거나 약세폭은 제한될 걸로 예상돼 달러/원 1300원 초반 등락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315-135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현 시점에서 연준의 빅컷은 오히려 거시 경제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고 연준이 처음부터 빅컷으로 접근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9월 25bp인하 가능성이 높음. 이는 빅컷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금리 전망보다는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것이어서 달러의 약세 압력은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 것으로 예상. 계절적으로 9월에 달러 자금이 부족한 점도 달러 약세가 쉬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 다만 9월 일본 총리선거에서 새로운 총리가 아베노믹스의 되돌림, 엔화 정책의 변화 등을 언급할 경우 달러/엔 경로를 통해 달러/원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예상 거래범위 : 1313-1354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단기적으로 달러/원 하단은 1300원 부근에서 지지될 전망. 추가적인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기에는 국내 펀더멘털이 약해. 부동산 이슈로 8월에 내리지 못한 기준금리는 10월 금통위에서 인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수출은 2분기가 고점으로 판단. 하반기에는 경상수급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데, 연초 이후 내국인 해외투자 규모가 동기간 경상수지를 웃돌아. 즉 꾸준한 해외투자 수요로 환율 하단은 강하게 지지될 전망. 이미 달러가 월간 3%가량 하락했는데, FOMC 이후 통화정책발 환율 변동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어. 연말까지 보면 국내 펀더멘털 부진, 미국 대선 변동성과 맞물려 달러/원 재차 상승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 예상 거래범위 : 1300-1390원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 @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